



##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을 꿈꾸는 한국노바티스(주)

고혈압과 고혈압 합병증은 세계 사망원인 1위이다. 미국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고혈압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5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에서 고혈압환자는 전체 27.9%로 나타났으며, 인지율은 56.9%, 치료율은 49.6%, 고혈압치료제 복용자 중 혈압조절율은 54.5%로 나타났다. 고혈압이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고혈압 환자 70% 가량은 제대로 혈압조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안드린 오스왈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1996년 스위스 산도스사와 스위스 시바가이기의 합병으로 1997년 출범했다. 한국노바티스는 혁신적인 신약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통해 국내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바티스 글로벌 다국적 임상프로그램의 국내 참여를 확대하여 한국 R&D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노바티스 본사 국제임상연구조직 ICRO(International Clinical Research Operations)의 정회원 국가로 승격됨으로써 한국과 한국노바티스 임상연구조직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의 핵심인재에 대한 인사제도 혁신과 글로벌 인재경영을 통해 글로벌 리더 양성에 주력하여, 2006년에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인재경영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과 항고혈압 복합제제 '엑스포지', 골다공증 및 골파제트병 치료제 '아클라스타',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 등이 있다. 노바티스는 최초의 경구용 레닌억제제계 항고혈압제인 '라실레즈'를 지난 3월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신약허가를 받았으며 9월에는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레닌을 억제하는 최초의 고혈압약제 '라실레즈' 출시



라실레즈(성분명:알리스키렌)는 고혈압의 근원적인 물질인 레닌(신장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최초의 경구용 레닌억제제로 1994년 이후 최초로 등장한 새로운 고혈압치료제이다. 미국 FDA에서 지난 3월 신약허가를 받고 지난 9월에는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내년 하반기 출시만을 남겨둔 라실레즈는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강하 효과가 약물투여간격(1일 1회)인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지금까지 출시됐던 약물 중 24시간 효과가 유지되는 약물은 없었다고 한다. 라실레즈는 임상실험 결과 고혈압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부전 및 고혈압치료제인 ACE 억제제나 이노제인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지드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혈압감소 효과를 보였다.

'라실레즈' PM 김은미 과장은 "라실레즈가 혈압조절이 중요한 당뇨병환자들에게도 효과적"이라며 "출시 전까지 지속적인 실험과 임상을 통해 새로운 내용들을 더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다른 고혈압치료제에 비해 라실레즈의 강점으로 우선 어떤 제품과의 병용에도 추가적인 혈압강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고혈압의 근원적인 물질(레닌)을 차단하는 새로운 약물이라며 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라실레즈는 로살탄 이후 10여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계열의 혈압약으로 이미 입증된 이환율, 사망률 개선 효과와 단백질뇨, 심부전 등에 대한 부가적인 효과도 추가로 확인되는 등 향후 잠재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노바티스 측은 지금까지 없던 레닌억제제 계열의 새로운 제품에서 오는 낯설음을 친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출시 전까지 학회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뛰어난 혈압강하와 내약성 지닌 '엑스포지'



엑스포지는 200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엑스포지는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서로 다른 계열의 두 가지 항고혈압제제 디오반과 노바스쿠를 한 알에 결합한 최초의 복합제제이다. 디오반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려주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II의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노바스쿠는 혈관 벽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차단한다. 두 제품 모두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 엑스포지는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과 노바스쿠라는 최고의 두 약물이 결합됨으로써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와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고,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해야 했던 고혈압환자들에게 치료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디오반과 노바티스의 상호보완 효과로 인해 말초혈관 부종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 한국노바티스 사회공헌 활동

한국노바티스는 국기와 지역사회,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익의 일부를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원하거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 • 디오반 사랑 나누기, 생명 더하기 캠페인

2003년 시작한 ‘디오반 사랑 나누기, 생명 더하기 캠페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디오반 처방금액 중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조성, 이 적립금을 정기적으로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하고 있다. 2006년 현재 889명의 개원의들이 ‘디오반 사랑 나누기, 생명 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후원금 2,000여만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200여만 원의 후원금을 한국심장재단에 전달,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장질환자의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다.

#### • 2007 국제 바이오 리더십 캠프(Int'l Biotechnology Leadership Camp)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 리더십 캠프’는 아태지역의 미래 생명과학분야에서 높은 잠재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의·약학, 생명공학 등 바이오 관련 분야의 역량 있는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생명공학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바이오산업의 미래와 도전에 관한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는 자리로 2004년부터 아태지역 차세대 바이오지도자 육성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노바티스 김은미 과장은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참가한 각국의 인재들에게는 짧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훌륭한 인재육성을 하는데 작게나마 공헌을 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노바티스 측은 “제약 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노바티스는 글로벌 비전과 통찰력을 가진 젊은 인재만이 한국 생명과학분야 발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본에서 아태지역 대학원생들을 위한 제4회 노바티스 국제 바이오캠프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11개국에서 23명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대학원생 2명이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 • 노바티스 지역사회 봉사의 날(Novartis Community Partnership Day)



노바티스는 창립기념일인 4월 24일을 노바티스 커뮤니티 파트너십데이로 지정하고 이날을 전후하여 해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직원들이 하루를 정하여 각국의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에서 1997년부터 전직원들이 종종 장애아동 시설 방문, 청계산 청소 및 환경정화, 무의탁 노인 요양소 방문,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가게, 노인전문병원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법국민 건강가족 캠페인 '5대 가족찾기'**

'5대 가족찾기' 캠페인은 '대대손손 건강하고 행복하게'를 슬로건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1세기에 걸쳐 생존해계신 1세대부터 5세대 이상 가족을 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익캠페인이다. 홍보팀 김지현 대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5대가족은 26가족이었다"며 "5대가 모여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좋았다"고 말했다.



• **'다 함께 행복한 세상' 사진전 병원순회 전시**

'다 함께 행복한 세상' 사진전은 사진작가 김우영씨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 및 환자가족과 의료진 등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 예술 사진작품으로 한국노바티스와 서울특별시사회의 공동 후원으로 지난 6월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갤러리 전시 에 이은 병원 순회전시는 사진전의 주인공들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들과 직접 사진의 생생한 감동을 나누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전시형태로 마련됐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실제 환자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전은 질병이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고 다함께 병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3위 제약사인 노바티스사의 국내 자회사이다. 노바티스는 2007년 포춘지와 2006년 매디애드뉴스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회사' 1위에 선정되었으며, 비즈니스위크지가 발표한 2006 '세계 100대 브랜드' 가운데 세계에서 43번째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만도 약 50여건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국노바티스는 당뇨병치료제 '가브스' 개발에도 노력중이며 200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